

관리에 적용시키기가 힘들다. 때문에 「낙농육우회보」에서는 이에 대한 지면을 대폭 늘려서 기술지

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낙농육우회보」를 이끌어온 직원

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끊임없는 발전을 기대한다. ■

사실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월간지의 역할을...



조 용 환
축산신보사 기자

“지가 진빛은 지가 갇두록 노력해야지유. 이빛을 어찌 아들놈에게 떠맡긴대유.” 이말은 지난 50여년간 한우를 정성껏 그리고 열심히 키우면서 어제와 오늘을 살아가고있는 어느 칠순 촌로의 하소연이다.

지난83년 만물이 소생하던 봄이촌로는 큰마음을 먹고 한우8두를 입식했으나 정부가 무자비하게 수입한 생우·쇠고기로인해 소값이 폭락, 소파동의 여건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

반세기간 닭은 경험과 소를 불줄알았던게 죄아닌 죄가되어 상당한 액수의 빚을 걸며쥐고 만이촌로는 그피해를 아들에게는 안겨주지 않기위해 요즘도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손발이 부르뜨도록 소사육에 전념중이다.

우리땅에는 이촌로와 함께 소를 키우는 사람이 80여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또다시 쇠고기가 수입되다니 —. 그것도 정육·지육은 물론 갈비까지 들어오고 「품질좋은 수입쇠고기...」운운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민기지도 않았던 선거공약을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소를키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있도록 제도적·행정적인 지원대책은 마련해줘야 되는데도 이에따른 대한조차 낙농육우인들이 납득하지 못할만치 제시해놓고 머뭇거리고있는 축산정책 입안자가 못내 원망스럽기까지하다.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무진년 한해는 막을내리고 희망에찬 기사년의 새해는 밝았다. 지난해는 그어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정기관이라면 외국농민이 아닌 우리농민을 살리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올바르게 농업정책을 펼쳐나감은 당연하리라.

느해보다 축산업계에 있어 시대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한해였다고 풀이된다.

특히 낙농육우산업은 지난 87년 12월16일 대통령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쇠고기수입문제가 운운되더니 80여만 낙농육우인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쇠고기 수입은 재개됐다.

쇠고기·유제품수입 결사반대를 위한 목소리는 전국 또는 지방 규모로 개최된 수십차례의 결의대회를 통해 한반도가 뒤흔들렸다해도 과언은 아닌성싶다.

이에 참여한 소를 키우는 사람만도 10여만명에 이르니 녹두 전전봉준장군이 일으킨 동학혁명과도 비교가 안되는 최대의 인과가 운집한것이다.

이같이 생존권수호를 위한 애끓는 절규는 정부는 물론 13代 국회에서 양축농민들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81년이후 몇년간 계속 무절제하게 수입된 생우와 쇠고기로 전국의 많은 양축농민들이 도산또는 전업했고 분신자살 소동과 파산 직면에까지 몰고갔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족분·소값안정을 내세워 지난해 10여만두에 달하는 쇠고기수입에 이어 올해는 이보다 3배에 달하는 3만9천톤의 쇠고기 수입물량을 결정해놓고 추진중이다.

반만년 우리민족과 함께 영위해 온 역사적인 산물인 한우가 보호·육성되기는 커녕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놓은 쇠고기 자급기반마저 이로인해 무너졌으며 제2의 소파동의 우려마저 없지않다.

앞으로 정부는 현실과 미래를 바로 직시하고 쇠고기·유제품을 비롯 농축산물은 무기화가 될수도 있다는 인식을 되살려야 되겠다.

우선 현재 흔들려져있는 소사육 번식기반 희생과 한우를 세계적인 육우로 개량·증식토록 하는데 따른 제반대책을 정부는 보다 강

구해 나가야만 하겠다.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위한 농정기관이라면 외국농민이 아닌 우리농민을 살리는데 한치의 양보도없이 옳바로 농업정책을 펼쳐나감은 당연하리라.

아울러 생산비절감을 위한 축산물생산에 낙농육우인 모두와 정부는 보다 단합하고 저해요인은 다 같이 제거해 나가야 하겠다.

이 모든아픔을 「월간 낙농육우회보」는 정통 축산관련전문지와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전제아래 취재해서 처방해야 할것이다.

진실은 취재원에서 왜곡되고 전달자에 의해서도 굴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실」과 「진실」의 일치여부를 「월간 낙농육우회보」는 깊이통찰, 낙농육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낙농육우인들이 바르게 알 권리를 훼손시키지 않는데 우리함께 힘을 모으자. ■